

‘전국 출산율 1위’ 영광군, 생활밀착형 돌봄도시 ‘주목’

돌봄 인프라·육아 친화 정책 추진

영광형 키즈카페·아빠휴직 등 지원

전국 출산율 1위인 영광군이 생활밀착형 돌봄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5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국 최고 출산율을 6년째 지켜내는 저력은 돌봄의 일상화, 생활 속 복지에서 비롯, 돌봄 인프라와 육아 친화 정책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영광군의 ‘생활밀착형 돌봄 도시’ 비전이 지속할

수 있는 성공으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은 1.7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의 두 배를 넘는다.

그 배경엔 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추진해온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있다. 출생 기본수당, 육아용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다둥이 가정 지원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한 것이 주효했다.

대표적으로 오는 9월 본격 운영을 앞둔 ‘우리 아이 긴급·일시돌봄터’가 있다.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3-12세 아동을 돌봐주

는 시스템이다. 같은 시기 이전 예정인 ‘장난감 도서관’과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놀이문화, 공동체 기반 육아를 지원한다.

또한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을 본격화했다. 지난달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열고, 접근성·유형·수요 등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혹서기에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을 통해 보호자와 아이 모두 삶의 질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용역을 통해 소규모 실내 놀이터부터 테마파크형까지 최적의 모델을

도출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도 주목된다. 어린이집연합회, 청년센터, 교육지원청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설문조사, 원탁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를 구체화하고 있다.

영광군의 돌봄 정책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처럼 가족 내 역할 균형까지 고려한다. 육아휴직 중인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이 지원은 가사·돌봄의 공동책임임을 강화하며, 정서적 유대와 지역 출산율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

특히 영광군의 생활밀착형 가정복지지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지역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이 중요 과제로 꼽힌다. 예산의 안정적 확보, 현장 중심 피드백, 주민참여형 운영 모델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밖에 고령자·한부모·위기가정 등 돌봄의 사각지대까지 보완이 필요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형 키즈카페를 포함해 다양한 돌봄 인프라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좋은 도시’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돌봄과 놀이, 지역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해남군 현산면의 위치한 ‘포레스트 수목원(4est)’에 수국이 만개한 모습.

〈해남군 제공〉

문가든·비원·산이정원·4est 수목원 등 정원 관광지 각광…별빛전망대 ‘눈길’

해남군이 초여름 수국이 만개한 아름다운 정원들로 관광객을 초대한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 계곡면에 위치한 ‘문가든’은 황폐했던 밭과 과수원을 수년간 정성껏 가꾸 조성한 정원 겸 카페로, 1만여㎡ 면적에 300여 종의 수목과 초화류가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특히 저수지와 맞닿은 경계 너머로 펼쳐지는 흑석산 풍광과 오류재 저수지의 철새 풍경은 ‘차경(借景)’의 맛을 더한다.

전남 제18호, 해남 최초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이곳은 저녁이 되면 정원 전체에 조명이 켜져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사진 명소로도 사랑 받는다.

삼산면에 위치한 ‘비원’은 2024년 전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원으로, 정원주인 김미정 대표가 2017년부터 직접 나무를 모아 조성했다.

두륜산 자락의 다랑이는 지형을 살려 다양한 테마의 정원이 이어지며, 100년 된 철쭉이 중심에 자리한 한울정원, 수국과 동백이 어우러진 수국동백정원, 해남 들녘을 조망할 수 있는 별빛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올해 전남 민간정원 28호로 등록됐다.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된 ‘산이정원’은 전남 최초의 사립식물원이자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정원이다. 지난해 5만평(16만5천여㎡) 규모 1차 개장에 이어 올해 16만평(52만9천여㎡)이 정식 개장되면 국내 최대 민간정원이 될 전망이다.

바다를 연상케 하는 ‘맞이정원’과 어린이들의 자유를 상징하는 ‘노리정원’, 산이공원의 대

포 상징물인 거대한 사람 형상이 반기는 ‘하늘마루’, 어린 왕자와 함께하는 ‘동화의 정원’ 등 6개로 나뉜 주제별 정원과 500여종의 식물로 꾸며졌다.

정원은 수목원과 미술관, 산책로, 친환경 놀이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현산면의 ‘포레스트 수목원(4est)’은 2019년 해남 최초 민간 사립수목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6만평(19만8천여㎡) 숲에 1천400여종의 식물이 식재돼 있다. 특히 8천여 그루의 수국이 식재된 수국정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 산 능선을 따라 다양한 품종의 수국이 장관을 이룬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의 아름다운 정원과 자연 속에서 초여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며 “많은 방문객들이 수국과 정원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힐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가고 싶은 섬’ 완도 금당도에 캠핑장 조성

데크 23면·글램핑 4동…연말 완공

남해안 최적의 트래킹 지역으로 손꼽히는 ‘가고 싶은 섬’ 완도 금당도에 캠핑장이 조성된다. 완도군은 15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당면 차우리 1370-1번지 일원에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캠핑장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조갑도〉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지난 4

월 착공했으며, 올 연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며, 부지면적 1만6천38㎡에 캠핑 데크 23면과 글램핑 4동을 비롯해 샤워장, 취사장, 관리 사무소, 화장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캠핑장이 운영되면 그동안 숙박 시설이 미비해 체류형 관광의 한계에 부딪혔던 금당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021년 금당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이후 생태 복원, 문화관광, 자원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나주시, 취약계층 이용시설 ‘쿨루프’ 지원

경로당 등 25개소에 차열페인트 도포

나주시는 15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쿨루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쿨루프 사업은 태양광 반사율이 높은 차열 페인트를 건물 지붕에 도포해 햇빛 흡수를 줄이고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냉방기기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나주시는 올해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 등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차열 도포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건강 보호와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쓴다.

나주시는 지난 2023년에도 36개소에 쿨루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올해도 극심한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쿨루프 지원을 통해 건강과 에너지를 함께 지키는 지속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함평,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본격 분양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18-24일 입찰

함평군이 귀농·귀촌 희망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해보면 산내리 일원에 조성된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의 분양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오는 18-24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서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분양 전자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개찰은 30일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되며 낙찰자는 다음날인 7월1일 오후 2시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군청 지역개발과(061-320-15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군은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해보면 산내리 일원에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를 설계했으며,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주

택용지 55세다, 농업용지 4필지, 텃밭 17필지를 조성했다.

전원주택단지는 광주시청에서 차량으로 약 25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15분 거리이며 국도 22호선과 23호선과 인접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또한 인근에는 용천사, 잠원미술관, 모악산 등 풍부한 자연·문화 자원이 있어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분양은 주택용지와 농업용지를 함께 공급해 은퇴자와 귀농 희망자들이 도시의 편의성과 농촌의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가 함평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연수 기자



목포시의회 “장마철 침수 피해 최소화 촉구”

조성오 의장 “위험지역 대책 마련해야”

목포시의회회는 15일 “지난 13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에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조성오 의장을 비롯해 이동수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훈 의회운영위원장은 목포시 소관부서로부터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예상지역의 하수시설물 정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장마철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상동과 석현동 일대 도로가 침수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올해 역시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수관로 증설, 우수받이 신설, 침수방지시설 일체를 점검했고, 우수기에 맞춰 하천 쓰레기와 갈대 제거 등 장마철 침수 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장마기간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시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오 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들이 책임감 있게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특히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통장 등과 협력해 침수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마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수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과 비상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조명 바꾸고 휴게공간 만들고…무안지역자활센터 ‘새단장’

무안지역자활센터는 15일 “센터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센터 전반에 대한 새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4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센터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2천7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번 새 단장으로 ▲노후 전기·조명 교체 ▲벽체 리모델링 ▲휴게공간 조성 ▲계단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이 개선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시설개선을 통해 자활참여자와 직원들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



된 환경에서 자립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군에서도 앞으로 자활사업의 내실화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